

타키자와시 전통문화 축제

2018년 1월 28일

이세훈

제가 유학하고 있는 이와테현은 카구라와 춤, 검무 등 지역 전통문화가 많이 남아있어서, 이곳저곳에서 전통문화 축제가 많이 열립니다. 한국에 비해 주민들의 전통문화에 관한 관심이나 자긍심이 크고, 1100개에 달하는 전통문화 보존회가 있다고 하니 놀랍네요.

2018년 1월 28일에는 타키자와시에서 열린 [타키자와시 향토예능축제]에 다녀왔습니다. 오늘 본 것은 [타키자와 조랑말춤], [모토무라 아이들 산사춤], [시노기 카구라], [오오사와 모내기춤], [소우마에 북 연주], [민요], [카와마에 카구라], [타키자와시 산사춤]입니다.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충실한 내용이었습니다.

이번 축제에서는 처음 본 것들이 많았습니다. 뻘-뻘- 우는 소리를 내는 곤겐사마라던지, 코마오도리, 모내기춤이 이번 타키자와시 전통문화 축제에서 처음 접한 것들입니다.



<시노기 카구라 시시춤>

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길, 곤겐신(神)은 토착신과 부처님이 섞인 신이라고 합니다. 이걸 제 의견이지만, 곤겐신이 등장하는 춤의 이름이 [시시춤]이라 붙여져 있어 왜 [곤겐춤]이 아닐까 라고 생각했지만, 그렇게 깊이 따질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.

그리고, 중요한 부분은 곤겐신의 소리인데, 곤겐신이 격렬하게 움직이고 뻘-뻘- 소리를 내는 부분이 인상깊었습니다. 마치 곤겐신이 화가 난 모습 같았습니다.



< 타키자와시 조랑말춤 >

다음은 조랑말춤입니다. 이와테현에 오고나서 자주 향토문화축제를 보러 갔습니다. 차구차구우마 코리는 말과 관련된 전통행사도 본 적은 있지만, 조랑말춤을 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. 조랑말 옷을 입은 아이들이 귀엽네요.



< 오오사와 모내기춤 >

마지막은 모내기춤입니다. 해설해주신 분의 말씀으로는 모내기춤을 볼 수 있는 기회는 점점 줄어들었다고 하네요. 절과 신사에서 보존하는 카구라와는 달리, 모내기춤은 민간 보존회에서만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. 그런 의미에서는 진귀한 구경을 한 셈이네요.

오오사와 모내기춤에서 인상적이었던 것은 [빨간 빛타]가 등장하는 것과, 장이 바뀔 때 마다 나레이션같은 설명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.

사실 이날 버스를 잘못타서 아침부터 많이 꼬였지만, 타키자와의 자연 경관도 멋지고, 향토예능에 관해 새로이 알게 된 부분이 많아 충실한 하루였습니다.